



이·성·일 선생님택 탐방

탐방 / 편집부 메아리

우리 교지 편집부 일동은 올해 인항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인항 10년 근속상을 수상하신 선생님들 중, 이성일 선생님 택을 탐방하기로 결정하였다. 매번, 이 코너에 젊으신 선생님 택만 탐방하고, 연세가 지긋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저 뒤편에 서 있어야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교지 편집부는 때마침 인항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만나 보고 싶어요' 코너에 인항과 함께 인항에서 10년을 보내신 이성일 선생님 택을 탐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취재를 하면서, 우리는 평소에 교실에서만 바라보던 그러한 선생님의 모습과는 다른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성일 선생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마치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보는 듯했고, 처음에 우리가 내심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편안하게 취재를 끝마칠 수 있었다.

메아리 : 선생님의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 평안 북도 신의주 30리 밖 선천이라는 곳 출신인데, 47년 할머니와 함께 월남했고, 현재까지 계속 인천에서 살고 있지. 그리고, 학교는 송현 초등학교-인천 중학교-제물포 고등학교-서울 사대 수학과 출신이다.

메아리 : 선생님의 좌우명(생활 신조)과 교육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 좌우명이라... '충실히 하자' 자기가 직면하는 현 시점에서 충실하자.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잘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미래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실에 충실하고 싶거든.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을 알 수 있지. 교육관은... 글썽... 너무 어려운 문제야. 내가 생각할 때, 현재 내 교육관은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금 우리 나라의 급변하는 교육 체제 안에선 개인적 교육관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거든. 아마도 그것은 우리 교육계의 문제점일 것 같다.

메아리 : 선생님의 어렸을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 오다 노부가나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오는 '大望'이라는 책에서 오다나 히데요시가 무역을 통해 나라를 번영시키는 것을 보고 무역업자가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던단.

메아리 : 선생님께서는 인항고에 오시기 전에 타학교 수학 선생님이로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셔서 인항고에 오시게 되었고, 인항고에 오시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 사립 학교로서 재단의 순수한 목적이 마음에 들었다. 미래를 위한 재단의 순수한 투자 영리 추구가 아닌...

메아리 : 선생님께서는 인항에서 10년을 함께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초기의

인항인들의 모습과 지금 인항인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 전에 그러니까 3,4회까지는 모두가 활기차 있었다. 학생들이 '우리가 터를 잘 잡아야 후배들이 잘 돌아 놓은 데에서 학교를 빛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모두들 의욕이 넘쳐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안 일해진 것 같아. 10년이 되니까 아이들도 그런 정신이 희석되는 것 같고,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대하는 의욕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메아리 : 교직에 있으시면서 보람을 느끼신 적은 언제인가요?

선생님 : 몇몇한 제자를 만났을 때다. 그것이 꼭 잘 나서 몇몇한 것보다는 잘 나지 못했어도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제자를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있지.

메아리 : 그럼, 반대로 교직에 있으시면서 회의를 느끼신 적은 언제인가요?

선생님 : 사람들이 선생님이란 직업이 전문직이 아닌 것처럼 볼 때,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로만 볼 때 비애감을 느낀다. 또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비애감인데, 학생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했는데 무반응일 때...

메아리 : 선생님께서도 존경하시던 은사님이 계실 텐데요. 그 은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 초기의 제품포고 졸업생들은 모두 알 테지만 당시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영희 교장 선생님을 나는 가장 존경한다. 고등 학교 입학식날 일일이 모든 신입생을 교장실로 불러 배지와 단추를 나눠주시며 '민족의 양심을 지켜라, 등불이 되자!' 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셨다. 난 항상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메아리 :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 송도고 재직시 담임을 맡았을 때, 우리 반 한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졸업식 전날 동인천에서 인화 여고 3학년 학생과 막걸리를 마시며 놀다가 통급에 걸려 파출소에 끌려간 학생. 그 학생은 당시 불건전 이성 교제로 퇴학까지 거론되었으나, 난 그 학생의 말에 진실됨을 믿고, 내가 사표까지 써가며 변호하여 무사히 졸업시킬 수 있었던 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메아리 : 자녀분들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남다른 방침이라도 있나요?

선생님 : 난, 자식들이 원하는 건 하게 한다. 하지만 '홀로 서기'를 강조한다. 사람은 아무리 다른 이들이 도움을 주어도 마지막에는 '홀로 서기'인 거야. 다른 사람들이 정상까지 한 사람을 올려놓았다 해도 그것을 지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인 거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 내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자기 중심이 문제라고 생각해.

메아리 : 인항인들에게 추천하시고 싶은 책이나 영화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 우선 책을 통해 여러 가지 체험을 하도록 권한다. 특히 100년이 지나도록 고전 목록에 있는 책, 그리고 최근에 나온 토지나 태백산맥, 그리고 아리랑 같은 소설도 좋다. 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관한 책 위에 나온 大望이나 일본사 같은 것도 읽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아직 비판 능력이 부족하므로 한 가지 사상을 담은 책이 아닌 여러 가지 사상을 담은 책을 두루 읽어야 좋을 듯하다.

메아리 : 마지막으로 인항고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자, 일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느끼면서 행동하자, 그리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자! 라는 말을 하고 싶다.